

AiNA 산업융합위원회 제7회 정례회의 개최 결과

('26.05.19.(화), AINA 사무국)

I.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6.04.07.(화), 15:00~17:00/NIA 서울사무소 15층
- (논의내용) NIA 오픈랜 실증공모 설명, 전문가 세미나 등
- (참석자) 산업융합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 사무국 등 22명
 - 김태운 책임, 강필진 부장, 손병혁 책임, 권혁성 책임, 김석명 책임, 심재훈 책임 (이상 LG전자), 장준희 책임(NIA), 박은복 상무(진인프라), 지승환 CTO, 성찬운 프로(이상 LIG아큐버), 정남철 연구위원, 김상규 수석(이상 IITP), 김한석 전무(솔리드), 박송철 부사장, 유수진 사원(이상 삼지전자), 공은빈 매니저 (뉴젠스), 이종욱 상무(웨이브일렉트로닉스), 임병철 전무(에프알텍), 이동형 차장 (기가레인), 박영완 상무(퀄컴), 고의준 총괄(ASW), 김현수 매니저(AiNA)

II. 주요 결과

□ Future of ORAN and DAS : 김한석 전무(솔리드)

발표자료 비공개

- SOLiD 기업 및 사업 현황
 - 핵심 주력 제품은 DAS로 글로벌 시장에 60만대 이상 공급·운영 중
 - O-RAN 주요 제품군으로 O-RU에 해당하는 DASource가 있으며 상당한 에너지 절감과 공간 최적화 등이 가능
- 글로벌 O-RAN 상용화 성과 및 미국 NOFO2 국책과제 선정
 - 2019년부터 오픈랜 개발에 착수하여, 2021년 미국 버라이즌을 통해 상용화에 성공, 현재 미국, 독일, 일본, 한국 공항, 병원, 경기장 등 다양한 환경에 오픈랜 장비를 성공적으로 구축

- 특히, 독일 최대 축구 경기장인 Signal Iduna Park에 DaSource 및 DAS 구축을 완료하고 '24.5월 첫 상용 오픈랜 서비스를 개시
- 미국 NTIA NOFO2 국책과제에 미국 외 기업으로 유일하게 선정되어 2년 약 300억 편당을 통해 Virtual Shared O-RU 기술을 개발 중

○ **Technical Challenges & 6G 혁신 로드맵**

- Shared O-RU 기술은 여러 사업자 간의 상호 조율이 필수적이며, 업링크 방향으로 여러 O-RU가 수신한 신호를 통합할 때 버퍼링 및 지연 처리하는 기술 난이도가 높음
-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6G DAS를 개발 중에 있으며, 2028년 판교에서 실외 및 실내 환경에서 필드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

○ **주요 질의응답(Q&A) 정리**

- SOLiD의 글로벌 성과의 핵심 요인은 전체 시장이 아닌 인빌딩용 DAS 오픈랜이라는 틈새시장에 집중된 부분에 있다고 판단됨
- NOFO2 프로젝트 제안에는 버라이즌망에서 시험 및 검증을 해주겠다는 동의서가 포함, 다른 글로벌 DU벤더와도 버라이즌의 영향력을 통해 과제 내에서 상호운용성 테스트를 진행 예정
- 글로벌 메이저 DU 업체들과 상호 연동 프로파일을 맞추는 작업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큰 진입장벽이자 자산임

□ **2026 NIA 국내 오픈랜 확산 및 글로벌 실증 공모 설명회 질의응답 : 장준희 책임(NIA) 상세내용 발표자료 참고**

○ **사업배경**

- 글로벌 실증 및 수출에 대한 정부 요구사항에 맞춰, 국산 오픈랜 장비의 글로벌 진출 및 수출을 위한 대표 레퍼런스 확보를 목표
- 오픈랜 기업 대상 수요조사 결과('25.11월) 인증 지원 및 국가별 다양한 통신 정책 및 규제 정보 지원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 이를 사업에 반영

○ 사업개요

- (기간/예산) '26.05.29.(예정) ~ '26.12.15.(단년도) / 12억원(매칭펀드)
- (대상망) 국내 및 국외 기관·기업의 5G 특화망

○ 핵심 실증 요건

- (멀티벤더 오픈랜 국내 실증) O-RU 장비는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멀티벤더(2개사 이상) 연동 필수, O-DU/CU장비는 국산 및 외산 장비 혼용 구성 허용
- (오픈랜 글로벌 실증) 국외 5G 특화망에 개방형 기지국 구축·운영, △선진국(미국, 일본, 유럽 등) 중심의 검토 및 제안 권고, △국외 수요처 요청 시 단일 벤더 구성 인정, △자사 국외 지사로 단순 내부 판매는 불인정이며 국외 사업자와 공식 협력 증빙 문서 제출 필수
- (글로벌 진출 기반 조사) 미국, 일본, 유럽 각 1개국, 동남아 1개국 등 총 4개국 조사 필수, 컨설팅 기업 위탁 또는 외부전문가 활용 필수, 국가별 정책·규제·인증 및 시장현황 다양한 사업 추진 체계 도출

○ 주요 질의응답(Q&A) 정리

- KCA와는 주파수, 인증 부분에서 상호협력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은 글로벌 실증이라 KCA 특화망 사업과 겹치는 사항은 없음
-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은 글로벌 진출 및 실증 가능성이며, 국내는 수요처가 향후 지사 및 다른 장소로 확산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
- 국가마다 주파수 대역이 다르고 인증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어, 국내외 PlugFest 수행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협의 예정
- 해외 장비 구축에 대한 서비스 실사(1~2회) 예산 편성이 필요
- 해외에서는 클라우드 연계 수요가 많지만, 국내 특화망은 폐쇄망으로 정의하여 클라우드 망 연계가 제한되어 있음, 해외 클라우드 활용사례 등을 확인하여 국외 실증 시 반영을 검토하기로 함

Ⅲ. 회의 전경



(회의 배경 및 안건 소개)
AINA 김태윤 산업융합위원장(LG전자)



(Future of ORAN and DAS)
썸리드 김한석 전무



(2026 NIA 국내 오픈랜 확산 및 글로벌 실증 공모 설명회 질의응답)
NIA 장준희 책임



(전체 전경)

끝.